

모든 성인 대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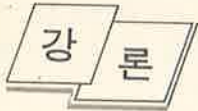
제 1 독서 : 묵시 7, 2-4, 9-14

제 2 독서 : 1 요한 3, 1-3

복 음 : 마태 5, 1-12a

# 순정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뵈게 될 것이다”  
(마태 5, 8).



## 성인들의 삶은 신앙의 가르침



박찬길 신부 / 조촌동 천주교회

오늘은 하느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 천상 성인들을 기념하는 모든 성인의 날입니다. 우리는 매일미사를 봉헌하면서 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특별히 겨울의 문턱에 서서 11월 한달 동안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겨울을 지나 봄이 오듯이 죽음을 거쳐 천상의 삶으로 건너감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삶인 천상 생명에 대한 강한 애착과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후반부에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이란 교회 구성원의 연대감과 일치감을 뜻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과 천국에서 천상의 영광을 누리는 이들과 연옥에서 단련받고 있는 이들이 모두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여정에 있는 지상교회와 단련중에 있는 연옥교회, 그리고 기쁨과 개선중에 있는 천상교회의 무리가 서로 도와주고 기도하며 이끌어준다는 의미가 바로 ‘성인들의 통공’입니다. 따라서 지상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신자 상호간에 기도와 선행으로 서로 돕고 또한 천국에 있는 성인들을 공경하며 그들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고 성덕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며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기도와 희생으로써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 백성으로서 교회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과 친교를 맺으며 그분의 은총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성인들은 하느님과 완전한 친교를 누리는 분들입니다. 교회는 그 초기부터 성인들을 공경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순교자들은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써 믿음과 사랑의 최고 증거를 보였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믿었

습니다. 그 후 그분들 무리에 그리스도의 동정과 청빈을 보다 충실히 본받은 이들과 그리스도교적 덕행의 훌륭한 실천으로 신도들의 존경과 모범이 된 이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들은 개선한 형제들로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 자신을 뵈오며 완전한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협력자들이며 그리스도의 벗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옥좌와 어린양 앞에서(묵시 7, 9) 끊임없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완전한 친교를 희망하는 우리들은 성인들의 삶을 가르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인들은 그리스도의 협력자이며 그리스도의 벗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 명

# 주께서 헤아리신다면

신광연(가브리엘)

아직 단풍의 현란한 색채가 고운데도 계절은 벌써 겨울로 들어서는가. 며칠이 지나면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다.

봄에 핀 잎새는 여름의 열기 속에서 푸르러졌다가 늦가을 서리에 각기의 아름다운 빛깔로 마지막을 장식 하고는 낙엽이 되어 땅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찬바람에 흩날리다 겨울의 눈비에 젖어 이내 썩어 흙과 한몸이 되고 만다.

잎새의 이 같은 영고성쇠가 흔히 인생의 그것과 비견되는 것은 사람의 태어남과 성장 그리고 죽음이 계절에 따른 잎새의 변화와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다.

잎들이 사라지는 겨울은 계절의 종지부다. 짧은 식견으로 그 연유를 헤아려보지 못했으나 교회에서 겨울이 시작되는 첫째 달이 위령 성월로 지켜지는 것도 이 같은 계절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내리기 전에도 우리 선인들은 해마다 추수가 끝날 무렵이면 문중 시제를 모시고 햇곡 식으로 만든 제물로 조상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은덕에 감사했다.

하나이신 천주를 모르던 조상들도 사후의 세계가 있어 육신을 떠난 영혼이 구천 어디엔가 머물고 있다고 믿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성인의 영혼은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악인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도저도 아닌 보통사람의 영혼은 연옥으로 가 보속을 다한 뒤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믿어왔다.

지옥은 지옥 같은 곳이라고 접어두기로 하자. 연옥은 또 어떤 곳일까.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곳에서 받는 각고는 이 세상에서 심혹하고 참기 어렵다는 괴로움이라도 비할 수가 없다. 성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참기 어렵다는 괴로움이라도 연옥벌에 비하면 참으로 미소하다. 이 세상 불에 감히 손가락도 대지 못하는 차여, 연옥불에 탈까 경계하여라.”고 말씀하셨다.

성토마스 아퀴나스는 연옥의 아주 작은 벌이라도 이 세상의 제일 큰 벌보다 더하다고 하셨다. 성인들은 연옥불이 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만 다를 뿐 지옥불에 비해 조금도 덜함이 없이 무서운 형벌이라고 말씀하셨다.

악인도 아닌 보통사람의 영혼이 왜 이처럼 고통스러운 연옥의 시련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주일미사에 꼬박꼬박 나가고 이렇다 할 죄도 짓지 아니하고 자선단체나 불쌍한 이웃에게 적당한 헌금이나 도움도 주고 고스톱도 좀 즐기고 주말이면 등산도 하면서 건강을 다지고 자리에 따라 세상의 불의에 목청도 좀 돌우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그럭저럭 즐기며 사는 삶이 무슨 큰 죄가 된다고 연옥에 가야 할까 슬그머니 이의를 제기할 법도 하다.

그러나 주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감당할 자 어디 있겠는가.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저녁 죽은 모든 이의 영혼에게 평화의 안식을 주시도록 천주께 기도하는 것이다.

일찍이 세상을 뜨신 선대 어른들의 영혼은 지금쯤 연옥벌을 면하셨는지 헤아릴 길이 없다.

평생 부처님을 믿어오신 노모께서는 요즘도 매일 선고의 영정 앞을 서성이며 명복을 비시는데 이 불효자는 그저 건성으로 보아 넘겨 왔다. 이 아니 큰 죄인가.

다시 위령 성월을 맞으며 이 한달 동안이라도 천주께 감사하고 천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회생과 애공, 고행으로 가련한 모든 연령들에게 열옥문을 열어주시도록 간구하기로 다짐해본다.



## 숲정이 산책



11월은 위령 성월

주님이 계시기에

# 백의의 천사

김복기(요왕 루시아) 수녀 / 전북대병원



“...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창세 3, 19).  
11월은 위령의 달이다. 죽음으로써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신앙이 완성되기도 하며 인간사의 이별이요 끝없는 후회와 반성을 하게 하는 약하다 약한 인간 본연의 모습인 죽음을 일깨워주는 인간의 달이다.

사람의 고통과 죽음이 가장 많은 곳은 병원일 것이다. 이곳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임종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값지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분 김복기(요왕 루시아·인보성체수도회) 수녀.

양반 고장 공주에서 6대째 신앙으로 다져진 집안의 6남매 중 다섯번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수도자가 될 결심을 했다. 스무살 나던 해 고모가 있는 인보성체수도회에 입회하여 27년간 간호수녀로서 병원 일을 해왔다. 오랜 병원사목의 일선에서 얻은 경험을 현재 임지인 전북대 병원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그는 누구보다도 병원 내의 사정을 잘 안다. 육체적 치료를 의사들이 한다면 이분은 영적인 치료를 맡고 있는 셈인데. 주로 암 환자, 불치환자들과 상대해야 하기에 그에게 죽음은 일상의 작은 사건에 불과하다. 비신자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

말로 값진 일이며 꼭 해야 할 몫이기에 보람과 긍지를 가진다는 그에게도 어려움이 많다. 영세민을 도와줄 재원의 빈곤과 넘쳐나는 환자들에게 고루 사랑을 나눠주기엔 항상 역부족임을 느낀다. 다행히 25명의 봉사자들은 정말 큰 힘이 된다. 각기 개성이 다른 환자와 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와 불신으로 괴롭기도 하지만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죽는 자가 산자를 위로하는 감동적인 모습에서 한없는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 그러나 끝까지 죽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죽음을 인식시키는 일은 정말 어렵다. 대상자에게 교리를 가르쳐서 영세를 시키기도 하지만 죽음을 가르치는 교리교사이기도 한 그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곧 나의 주님이요 그들이 부르면 언제라도 ‘예’ 하고 달려간다.”며 이를 자신의 사도직에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과의 아름답고도 가슴 아픈 옛 일들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적시는 한 수도자의 모습은 27년간의 그의 삶이, 그의 일상이 사랑과 헌신의 역사였음을 느끼게 해준다. 지금도 어느 임종자의 손목을 잡고 고별의 아쉬움과 감사의 눈물로 기도드리고 계실 수녀님의 모습에서 육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다.

신자들의 소리

# 작은 죽음의 은총

전병득(가시미로) / 금암 성당

해마다 시행하는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나는 폐암 4기로 선고받았다. 그렇게도 건강하던 육신이 하루아침에 생사불명의 암환자로 변하고 말았으니 이런 청천벽력이 또 어디 있을까? 처음에는 이 모든 사실들이 정말로 믿기지 않았으나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견책(히브 12, 5-11)과 실로암 연못가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의 권능(요한 9, 1-12)을 보여주기 위하여 냉담자인 나에게 병을 주셨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처음 수술기간과 항암요법을 시행하는 동안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천함을 느꼈고, 인간의 나약함과 현대의학의 한계성, 의사로서의 한계성을 뼈저리게 느끼며 깊은 절망에 빠졌었다.

3차 항암요법이 끝난 다음날 아침에 새벽미사 참석

후에 운명의 작은 죽음(Convulsion : 경련)이 다가왔다. 미사 참석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달리는 내 차 안에서 갑자기 온몸이 뒤틀리는 경련을 하게 되었다. 경련의 경험이 없었던 나는 이 경련의 순간을 죽음의 순간으로 생각하고 마지막 의식의 순간까지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아버지, 이렇게 짧은 순간에 아무런 고통없이 아버지 곁에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수분 후에 작은 죽음으로부터 의식을 되찾았을 때 온몸은 식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고 하느님께서 나를 작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알게 되었다. 이 경련은 폐와 그 주위 임파절에만 전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암세포가 이미 뇌에 전이되어 일어난 사건이었다.

지금도 치료중에 있지만 하느님께서 오직 대해(大海)와 같은 마음의 평화에서 사랑과 믿음에 이르는 무한한 은총만을 나에게 내려주신다.

위령 성월을 맞이하여

# 죽음, 그리고

오늘(11월 1일)은 모든 성인 대축일이고, 내일(11월 2일)은 위령의 날이다. 교회의 전례력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우리의 희망이요 보증인 모든 성인들의 통공(通功)을 고백하며 모든 성인들을 본받고 공경하자. 그리고 위령 성월인 11월 한달 동안 특별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자. 이 한달 동안 미사참여와 기도, 묘지 방문은 죽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공로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묘지를 참배하고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날마다 한 번씩 연옥 영혼들에게만 양보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고, 다른 날에는 부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 연옥 영혼을 위해 열심히 기도 하고 전례에 나타난 죽음과 생명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자.



사랑의 새로운 삶을 깨닫게 하는 위령 성월의 전례는 신자들에게 죽음을 상기하게 하고, 죽은 형제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도록 권고한다. 우리 곁을 이미 떠난 많은 형제 자매들, 우리와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 있던 부모 형제들 그리고 동고동락하던 친구들, 우리가 정성껏 돌보아주던 불우 형제들, 이미 그들은 떠났지만 신앙 안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죽은 이와 함께하는 신앙의 신비가 드러나는 위령 성월의 전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곁을 떠나면서 그토록 우리를 슬프게 하고 순간과 같은 삶의 허무를 일깨워주던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역시 기다리며 살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 생명이 충만하신 하나님

한처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하늘과 땅, 별과 꽃과 나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창조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생명 자체’요 ‘생명의 충만’이시며 ‘생명의 빛’으로서 인간이 생명을 누리고 생명으로 넘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인간의 현실은 죽음을

“... 한 인간이 죽으면  
 첫눈 맞던 아름다운 추억과  
 첫입맞춤, 그리고 첫싸움의 기억도  
 함께 죽는다네.  
 이 모든 것을  
 죽음은 함께 거두어간다네.”

(러시아 시인 예브투첸코의 시 중에서)

한해가 저물어 가는 11월, 잿빛으로 물드는 저녁놀 앞에 무언가 초조하고 움츠러드는 계절...

삶의 마지막은 완성이라는데, 죽음 앞에서 못내 아쉬움만을 가지는 인간...

“주여,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죽음보다 강한 사랑

교회의 전례가 주는 죽음의 의미, 그리스도인이 맞는 죽음은 생의 마지막이라는 서글픔을 앞서는 희망과 위안을 심어주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아가 8,6)의 새로운 삶이다.

방송애프터 시공의 선두업체  
 인텔PA·비디오 촬영 전문

### 백운전자

기술과 정성을 다하는 완벽한 방송  
 효과의 만족을 드립니다.

백정수(리노), 이순님(데레사)  
 전주 중앙 성당 뒤

☎(0652)252-0231

보석 감정, 디자인, 고급 시계  
 보석전문점 **빛돌**

이재호(베드로)  
 구정삼(세실리아)

관동로 사거리 전일관광 옆

☎ 86-8750~1

### 전주 오거리 천보당

결혼 예물 및 금은 보석 시계  
 할부 기능(카드 소지자)

손한성(바오로)  
 정정님(가타리나)

고사동 오거리  
 ☎ 84-4138, 253-0707

### 라베 독서실

최신시설 VTR 방영  
 밤 늦은 시간 안전을 위해  
 차량 대기중

김정애(갈멜다)

군산 문화동 청과시장 앞

# 생명 ...

동반한다. 이 이율 배반적인 삶의 신비, 인간의 죽음을 허락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인간의 죽음, 인간은 죄의 결과로써 죽어야 하지만 죽음을 원치 않으시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그 죽음을 거쳐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섭리 때문이다. 그리스도교는 참으로 생명을 열렬히 사랑하는 생명의 종교이다. 비록 죽음을 목상케 하고 준비시키는 교회의 전례가 인간 삶의 어두운 모습을 들춰내지만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영의 삶, 희망과 사랑, 생명을 기다리며 사는 삶에는 변함이 없다.

수많은 성인 성녀, 순교자들의 삶이 바로 그 좋은 본보기이다. 그들은 갖가지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체험한 것이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 인간 생애의 종말, 단절을 의미하는 죽음, 죽음은 모든 재물과 권력과 쾌락의 허무함을 폭로하고, 인간의 위선과 교만을 부숴뜨린다. 이렇게 죽음은 삶의 현실에서 인간이 연연해 하는 모든 것을 앗아 가지지만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으로 바친 모든 것이다. 순수한 사랑으로 자신을 남에게 내어 놓는 사람만이 하느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 완성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

죽음 후 하느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돈? 명예? 권력? 학식? ...

죽음은 일생의 요약으로서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치는 것을 뜻한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마음 구석구석을 채운 것은 일생을 걸쳐 실천해온 친절, 인내, 희생, 용서, 겸손 그리고 아버지께 대한 신뢰, 감사, 순종 등이었다. 한마디로 '아버지와 인간에 대한 사랑의 자기 봉헌'이었다.

이러한 예수의 삶은 하느님의 마음과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이 가져야 할 마음과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별히 예수는 당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은 인간에게 어떤 분이든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느님과 타인에게 사랑으로 내어주어야 하는가를 계시하신다.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을 사랑의 제물로 봉헌하시자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부활의 생명과 영광으로 보답해주셨다.

그리스도 신자 역시 예수처럼 죽는다면 그분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처럼 평소에 '사랑의 자기 봉헌'을 실천해나아가야 한다.

나날이 예수와 함께 사랑을 실천하자. 그러면 예수와 함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의 작은 부활로 살아날 것이다.

우리의 삶이 빠스카 신비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처럼 전개되고 심화되면 개인적으로 맞는 죽음과 세상 종말 때 맞는 부활로써 완성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니 나를 믿는 이는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이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요한 11, 25-26).

## 요십이 (1004) 김병오



### 성지 순례

스위스/로마/바티칸/이스라엘/스페인/산세바찬/루르드/파리(14박15일)  
출발: 93년1월4일  
회비: 2,600,000원  
인솔신부: 서용복(도마)  
접수처: 이리 54-2202  
전주 88-6666

### 감사드립니다

저희 분당 안용기(가브리엘) 신부님의 사제서품 25주년 은경축 행사에 협조와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주교 동산동 교회 신자 일동

기쁨보일러 판매 · 시공  
주택수리 전화 문의 환영

### 천우 설비사

(지정업체 제62호)  
전 요 한  
군산시 삼학동 268-37  
(삼학아파트 입구)  
☎ (0654)61-6551

### 엑스포 커튼

브라인트·커튼  
김 정 기(플로리아니오)  
소 미 자(디나)  
영동동 신일아파트 송죽알로에 옆  
☎ (0653)858-1298

### 건강에 기쁨, 성전 신축에 보람

한의학박사 이일량 씨가 추천하는  
고산 감잎차 100g-5,000원  
200g-10,000원  
당뇨병에 최고 비타민C 체내흡수제(합성 능력 회복제)  
천주교 고산 성당 본당 설립100주년 추진위원회  
☎ (0652) 73-4019 사제관, 71-4171 사무실

### 영은 피아노 교실

이른·실기 병행 지도합니다  
교우분 환영합니다.  
이 효 은(베로니카)  
동산신평 지나 우석중 정문 앞  
☎ 212-0148

뿌리를 찾아서

# 노송동 성당

- 후보 성인의 일을 본받으면서 -



전주는 원래 마한의 지역으로 백제 시대에는 완산이라 불렸으며 후백제 때에는 왕도로서 오랜 동안 호남 제일의 학문과 문화의 원천지였다. 수려한 산천과 비옥한 평야지를 낀 이곳이 '전주'라고 불리게 된 것은 신라 경덕왕 16년에 중국식 개명에 따라 불리운 때부터이다.

전주 남동쪽에 위치한 노송동에 본당이 들어선 것은 1967년의 일로써 당시 프란치스코수도회의 석해천(Marcello Pedraza · 石海天) 신부가 초대 주임으로 부임하여 다음해 6월13일에 대지 1,200평 위에 건평100평의 가건물 공사를 시작해 6개월 만에 완공하여 축성하고 12월 12일에 프란치스코 성인을 후보로 모시고 중앙과 전동에서 1,800여명의 신자들이 분

되어 본당이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적잖은 신자들로 출발한 본당은 1969년 5월 관할 신원리 공소 강당을 신축하였고 1970년 3월에는 왕정리 공소 강당을, 다음해인 1971년 5월에는 다리리 공소 강당을 신축했다.

신자수의 증가로 인해 본당이 협소해지자 1974년 3월19일 새성당 신축 기공식을 가지고 4대 공아영(Andre Comtois · 孔鵬瑩) 신부가 부임하던 다음달인 1976년 3월19일 드디어 새성당의 축성식을 가졌다.

규모있고 쓰임새있게 만들어진 본당건물은 갖가지 행사들도 훌륭히 치러냈으며 이듬해에는 명상의 집까지 완공했다.

1979년 2월20일, 10여년간 노송 성당을 운영해온 프란치스코수도회는

본당을 교구에 이관하였고 교구의 김정원(金正元 · 토마스) 신부가 부임했다. 한국인 신부를 맞은 본당은 성당 정리 작업, 다리리 공소 강당 증축공사 등 본당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1989년 12월2일에 사제관, 수녀원을 신축하여 축성하고 작년 12월에는 소양면 일대의 공소와 이후동 일부 신자 1,200여명이 이후동 본당으로 갈려나갔다.

이웃에 성체회 본원이 자리잡고 있고, 3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 본당은 현재 8대 주임 박진량(라우렌시오) 신부의 지도 아래 2,500여명의 신자와 50여개의 제단체가 지역 복음화와 신심 양양, 본당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명상의 자리

## 연미사

가을 꽃 가을 바람 속에서  
 남 몰래 피어오를 때  
 손톱 끝 봉숭아 물들인 만큼  
 남아 있는 상처와 함께  
 죽은 사람을 기억하자.  
 문순지대의 지리한 장마처럼  
 축축한 눈에 빠진 시린 뼈들이  
 이승의 간절한 그리움과  
 낮은 곳으로 내려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한번쯤 일어서는  
 그 죽음을 기억해보자.



어쩌면 질기게 괴로운 이승을  
 맨발로 떠나 내가 알 수 없는  
 자유를 외치는지도 모르지  
 누구였든가 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하얀 빈소 위에 만날 수 없는  
 그리움만 허망하게 걸려 있다.  
 가을이면  
 더 깊은 계단을 내려가며  
 황망한 얼굴  
 그 폐허의 슬픔을 여파시키면서  
 떨리는 손 위로 빛나는  
 내 슬픈 영성체.

명승카인테어 · 세차장

자동차 부품 일절  
 자동차 상담 전문  
 송 주 원(라우렌시오)  
 전북은행 본점 옆  
 ☎ (0652)75-2270~1  
 호출기 012-684-0107

베로니카 플라워숍

방식꽃말이회 전북지회  
 동 · 서양란, 웨딩부케, 성전꽃말이  
 국 성 회(베로니카)  
 서 지 숙(파비안나)  
 ☎ 87-8427, 88-8426

동서로삼익피아노

종합 악기 판매장  
 (피아노, 전자음원, 음향시스템 전문매장)  
 김 태 우(알풍소)  
 황 진 숙(안젤라)  
 ☎ 88-7717~8  
 (동서관통로 다가교 입구)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 ·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 교 구 소 식

- ❖ **성서교실 가을 놀이마당**
  - 때 : 11월1일 오전10시
  - 곳 : 윤호관
- ❖ **예비 신학생 모임**
  - 때 : 11월8일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 **가톨릭 문우회 시화전**
  - 때 : 11월5일(목) - 7일(토)
  - 곳 : 가톨릭센터 3층
- ❖ **가톨릭 문우회 문학 잔치**
  - 때 : 11월7일(토) 오후7시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연사 : 고은 선생
- ❖ **꾸르실로 총회**
  - 때 : 11월7일 - 8일
  - 곳 : 천호 피정의 집
- ❖ **역사, 철학과 신학과의 관계 및 성아오스딩 사상**
  - 때 : 11월14일(토)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강사 : 이규하 교수(역사 철학)
  - 주관 : 전북대 가톨릭 교수회

- ❖ **36대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출범식**
  - 때 : 11월7일(토)
  - 곳 : 윤호관
- ❖ **빛두레 신앙인 학교**
  - 때 : 11월2일 - 12월7일
  - 매주 (월) 오후7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 **성모의 기사회**
  - 때 : 11월7일(토) 오전10시
  - 곳 : 효자동 성당
- ❖ **컴퓨터 공동 구입 신청**
  - 교구 전산화에 의거, 각 본당(개인) 컴퓨터 신청하면 값싸게 구입 가능
  - 컴퓨터, 프린터, 옵션
  - 합계 200만원
  - 문의 : 부안 성당 박병준 신부 (0683)84-1331
- ❖ **사랑의 다리 후원회 피정**
  - 때 : 11월9일(월)
  - 오전9시30분 - 오후4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강사 : 손인숙 수녀(성심회)

-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때 : 11월16일(월) 오후3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제목 : 천국의 사도(101분)
  - 내용 : 미식 축구의 꿈을 이루어 가려던 죠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하늘 나라로 불리워간다. 천국의 사도를 만난 죠는 천국으로 가길 거부하고 다시 현세로 내려오지만...
  - 회비 : 1,000원

### 성소모임

- ❖ **인보성체수도회**
  - 때 : 11월8일 오후1시
  - 곳 : 본원 (0652) 84-3231
- ❖ **사랑의 씨튼수녀회**
  - 때 : 11월8일 오후1시30분
  - 곳 : 금암동 성당 교육관 (0652) 212-3233
- ❖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 때 : 11월8일 오후2시
  - 곳 : 서학동 성당 수녀원 (0652) 84-2276

##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신자다운 성지순례를

가을이 되면 각 본당에서 성지순례를 떠나는 일이 관례처럼 되어진 요즘. 먹을 것을 잔뜩 싣고 순례길에 오르는 단체가 많이 있다. 성지에서의 경건하고 엄숙한 행렬들. 누가 보아도 크리스찬다운 행위요 참으로 신앙인 본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흐뭇하다. 그런데 숙연하고 모범적인 모습들이 정반대의 상황으로 바뀌는데 문제가 있다. 흔히 돌아오는 길에 차내에서, 혹은 유원지에 들러 애써 놀러두

었던 본성(?)들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바쁘게 살다가 모처럼의 나들이에 스트레스 해소도 시킬 겸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도가 지나친 것이 흠이 아닐까? 돌아서면 스스로도 눈살 찌푸릴 행동들, 곳곳에 쌓여진 쓰레기들...

이 가을 순례길에선 신자다운 교양인다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무궁해 천연세제 및 삼푸  
**늘 푸른 집** (전주 원주 대리점)  
 • 천연샴(주방세제)  
 • 샴이랑(세안·세발 등)  
 • 아기샴(유아용 비누)  
 전 경 자(베로니카)  
 ☎ 86-2050  
 ☎ 012-682-6543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 영 자(헬레나)

### 샤넬안경원

이 순 구(도미니코)  
 정 병 채(실비아)  
 ☎ 54-9525  
 이리역 원광대 버스  
 승·하차장 앞

양재·한복·홈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대건안드레이)  
 동부시장은·민정당시원  
 ☎ 86-2715  
 \* 냉난방 완비

### 연지 화장품

최 선 남(모니카)  
 관동로 사거리 민중서관 앞  
 ☎ 85-2880

###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 삼 재(베네딕도)  
 ☎ 75-0550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김 동 주

※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1. 가정방문 : 3일-중노19반, 4일-중노20반, 5일-중노21반, 6일-중노22반, 오후2시부터.
  2. 설시간 : 5일 저녁미사 후, 3. 사목회상임위원회 : 6일 저녁미사 후, 4. 병자봉성체 : 6일 사무실에 신청바람.
  5. 중·고생 설지순례 : 8일 천호성지.
  6. 사무원경질 : 정선숙(프란치스카)→전효숙(마리나)
  7. 모임 : ①성심회, 자모회(3일 어머니미사 후) ②반회장(5일 전10시30분) ③장우회(8일 장엄미사 후) ④꾸리아(8일 천사의모후-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후2시)
  8. 금주철소 : 중노19, 20반, 차주철소 : 중노21, 22반.
- 지난주 봉헌금 : 741,570원 □ 교무금 : 1,290,41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성당보수공사 헌금 : 임영모, 정동민(각30만원), 조성옥, 최병현, 문선호, 빈첸시오회, 고인순, 오장수(각10만원), 이현기(6만원),
  2. 구역미사 : 3일 중앙동1반(후8시)-정병선씨 데, 4일-고사1반(후3시), 중앙2반(후8시)-신일균씨 데, 5일-고사2반(후3시) 6일-다가1반(후8시) 다가3반(후3시)
  3. 성체강복 : 5일 저녁미사 후, 4. 회합 : ①사목회(저녁미사 후) ②대견회(공식미사 후) ③구역분과회(3일 오전10시) ④울트라(3일 저녁미사 후) ⑤자모회(5일 오전10시) ⑥요셉회(8일 공식미사 후) ⑦꾸리아(8일 오후2시) ⑧청년회(8일 저녁미사 후)
- 차주전례 : 조옥례, 독서-김종석씨 부부, 봉헌-김성원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 540,530원 □ 교무금 : 823,81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옥

※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 ※ 오늘은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입니다.
1. 꾸리아 : 공식미사 후, 2. 사목회 : 7일(토) 저녁미사 후,
  3. 봉성체 : 3일(화) 4. \*93사업계획서 : 오늘까지 제출바랍니다.
  5. 미사시간 변경 : 저녁7:30에서 7시로.
  6. 수녀원 신축헌금 : 금주봉헌-104만원, 총액-3,474만원.
  7. 성서읽기 : 용기11장~20장 8. 금주철소 : 신비로운 장미Pr.
  9. 금주전례 : 해설-박영미, 독서①한동욱 ②김금자, 봉헌-오철규, 하월봉씨 부부, 차주전례 : 해설-최원길, 독서①양대환 ②이춘봉, 봉헌-김한길, 이수복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271,900원 □ 교무금 : 184,000원

**\* 서하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김 명 용

※ 오늘은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11월은 위령 성월)

1. 회의 : ①반장회-11월1일(오늘)공식미사 후(반장님들의 전원 참석바람) ②꾸리아-11월1일(오늘)오후2시 ③자모회-11월4일(수) 오전10시30분 ④사목회-11월4일(수)오후7시30분, 2. 모임 : ①울트라-11월11일(수)저녁미사 후 ②전례부-11월19일(목)오후8시, 3. 알림 : ①반당 여성분과 구역분과 단합대회-11월2일(월)아침8시경각 출발하오니 7시40분까지 성당에 집결(시간연수)목적지-고수동굴(각 반장님, 자모회원, 성심회원 전원) ②각 분과위원장님들께 9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제출치 않은 분과는 작년대대로 집행하겠사오니 양해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709,000원 □ 교무금 : 617,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 모든 신자분께 축하드립니다.

1. 오늘 공식미사 후 : 꾸리아.
  2. 사목회 : 11월 6일.
  3. 구역, 반장모임 : 11월 6일 오후2시.
  4. 영마들을 위한 비디오 상영 : 10.3일(화)오후2시(사랑의하모니)
  5. 청소년사 : 4구역 전부.
- 지난주 봉헌금 : 650,600원 □ 교무금 : 1,250,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 Pr별 위령미사 매일봉헌있음(계시관 참조)

1. 금주 : ①울트라(공식미사 후) ②제축클라라행체회(후1시30분) 2. 성체강복 및 조배 : 5일(목) 오전10시, 3. 병자영성체 : 6일(금) 4. 빼에따회 : 7일(토) 오전10시, 5. 연도대회 : 7일(토) 오전12시, 대상-레지오마리에 전단원, 6. 차주 : ①돈보스교회 성지순례(해미), ②자모회(전10시) ③일치의모후 꾸리아(후2시) ④사목회(후8시) 7. 사랑방(사제관1층)개축 : 재단채(re계회)회합은 사랑방에서 합니다, 8. 사목회 각분과는 9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바람(10일까지)
- 지난주 봉헌금 : 1,768,1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상 근

1. 위령의 날 : 2일 전5시30분, 전6시 미사, 1일까지 접수, 전11시에 성당묘지에서 합동위령 미사 있음, 출발-전10시.
  2. 이력회 단합대회 : 2일 합동미사 후에.
  3. 사목회장 이·취임식 : 1일, 이완규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근(미카엘)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시간, 성체강복 : 5일 후7시30분, 5. 연도대회 : 24일 후8시, 6. 유아세례 : 7일 후3시, 신청서 사무실에 미리 접수바람.
  7. 구역반회장 연수 : 3일 전10시30분, 불참시 대리인 참석.
  8. 가정방문 : 5일 전9시-7구역1반, 후3시-7구역2반, 6일 전9시-7구역3반, 후3시-8구역1,2반, 반회장 동행.
  9. 탈상미사 : 3일 전11시30분, 2구역2반 양말자 자매 자택.
  10. 회의 : 꾸리아-1일 후2시30분, 부녀회-4일 어머니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973,540원 □ 교무금 : 1,352,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사목회 : 오늘 오후7시, 동남삼정APT 2동 507호-한병갑(바오로)
  2. 전례모임 : 오늘 미사 후.
  3. 구역장월례회 : 4일(수) 오후8시.
  4. 대견회 : 5일(목) 오후8시.
  5. 성모회 : 다음주일 미사 후.
  6. 남성성가연습 : 매주 목요일 오후8시, 예비자교리반 : 매주 목요일 오후8시.
- 금주전례 : 최정순, 독서·봉헌-민혜리, 유대희, 차주전례 : 정 결, 독서-김희숙, 최종오.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 오늘은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11월은 위령 성월) 사목회장이 동 설-모임안내-

1. 안나요셉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한자봉성체 : 3일(화) 10시부터.
  3. 구역봉사자모임 : 4일(수) 10시30분.
  4. 사목회 : 6일(금) 오후8시.
  5. 성모기사회 : 7일(토) 10시30분.
- ※ 11월은 교무금 완납의 달입니다. 미납자는 확인하시고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레지오성지순례-11월8일(일)오전7시 목화APT 사거리출발(시간연수)  
미사안내 : 금주-신비로운 장미, 예언자의 모후, 차주-즐거움의 연유, 은총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 1,096,330원 □ 교무금 : 1,861,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1. 모임안내 : ①꾸리아-공식미사 후 ②제대회-2(월)오전10시, ③여성분과회-6(금)10시미사 후,
  2. 봉성체 : 5(목)오후2시,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3. 판공성사 : 3(화)저녁7:30 신주1,2반, 4(수)저녁 : 거성, 철출 5(목)저녁 무궁화, 융성, 6(금)저녁 : 신봉, 신리.
  4. 사목회 : 각 부장님들은 93년도 행사계획 및 예산안을 오늘까지 제출바랍니다.
  5. 테니스 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문의 : 성우회 가입하세요. 차주모임 : 울트라, 신축헌금봉헌액 : 450,000원 금주전례 : 박명래, 독서①조용거 ②한정숙 봉헌안내-이종표 부부, 정효현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1,418,080원 □ 교무금 : 2,093,000원

※ 성전전립기금 마련 조정보 신부님 동양화전 : 일시-11월13일~17일까지, 장소 : 학생회관 전사실.